제 371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9년 2월 21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 행 인: 이종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사순절 첫번째 주일

참회와 경건의 삶으로 의미있는 부활절 준비를

2월 17일 시작 부활절인 4월 4일 전날까지 40일간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닮아가는 기간으로

오늘은 사순절 첫번째 주일이다. 사순절(四旬節)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기간으로 부활절 이전 여섯 주간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며 전통적으로는 이 날을 '재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 이라고 부른다. 4월 첫째 주일인 4일에 부활절을 맞는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17일에 시작됐다.

사순절은 근신과 자기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별한 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기호식품을 절제함으로써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 모은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사순절은 앵글로 색슨의 '봄' 이란 의미의 렌넨(Lenen)에서 왔다. 그리고 '40' 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세기 교회들은 사순절을 회개의 절기로 삼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 로 삼았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로서 고난도 함께 하려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회개와 근신과 새로운 결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속과 부활의 참뜻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기간 중 각종 예배와 각 교회학교를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참회와 근신과 경건의 훈련으로 회개의 절기인 사순절을 지냄으로써 의미있는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자.

2월 학습 · 세례식

2월 학습 · 세례식이 24일(수) I · II부 예배시 거행된다.

14일과 오늘 실시한 학습 · 세례자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22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실시하는 추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답은 23일(화) 오후 7시에 있다.

성경통독사경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설 연휴에 성경통독사경회가 개최됐다. 사경회 참가자들은 낭독자를 따라 구약성경을 통독하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기회를 가졌다.

성경통독사경회에서

큰 솥을 걸고

신동기 (집사, 장년부 교사)

큰 솥을 걸고
허겁진 영혼으로
불을 지핀다

말씀 앞에 엎드려져
흐르는 눈물은
버리고 또 버리는
비우고 또 비우는

육신의 찌꺼기
천상의 아픔으로
영혼의 순결한 향기로
퍼지리라

큰 솥을 걸고
심장 깊은 곳에
불을 피운다

당신 앞에 엎드려져
태우는 불길은
타고 또 타는
죽고 또 죽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환희
새벽같은 부활의 황홀함은
당신의 장엄한
사랑의 고백이어라

이사야 강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사야 17장 4 - 11절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와 바벨론과 모압을 떼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깨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합니다.

1. 심판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1)야곱의 영광은 병든 자처럼 쇠약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점진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백성의 수를 줄이시고 점차로 고난의 쓴잔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동안 전쟁의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의 고통이 있었고 민족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작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깨달아야 합니다.

(2)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곡식은 밭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밭이 영광을 받기도 전에 농부가 곡식을 다 베어버린다면 밭의 영광은 끝나고 맙니다.

앗시리아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추수기가 된 곡식처럼 죄가 이스라엘에 관영 하니 곡식이 낫으로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농부에 의해서 옮겨진바 된 곡식처럼 빨리, 쉽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곡식이 익었을 때 낫을 휘두르는 것과 비교됩니다(계 14:15). 그리고 승리한 군대는 정성스러운 농부가 훌륭한 곡식이 자라나는 르바임 골짜기(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좌측에 있고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위치함)에서 될 수 있는 한 이삭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르듯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남은 자(remnant)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징벌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십니다(히 12:5 - 13). 그러나 떼리시는 중에서도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환난과 곤고를 당해도 회개할 뿐,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2. 심판날에 남은 자에게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조리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처다본다", "바라본다"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본 것처럼 남은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뿐 했으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자신이 실수하여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잘 극복하고 나면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고 이방 종교와 풍속을 좇는 이스라엘의 도시는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를 심고 울타리를 둘러도 그 땅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11절).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 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종윤 목사

3.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능력의 반석 즉 피난처이시며 능력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유다를 쳐부수기 위하여 이방과 결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경고장을 받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지왔습니다

21세기 선교비전을 가지고

문형숙 (집사, 프랑스 파리)

서울교회 성도들께 순례자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며 제가 새로운 감회에 젖게 되는 것은 서울교회와 제 영적인 나이가 같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때 무신론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울교회가 창립한 해에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사입문과정을 마쳤던 제게 믿음의 선배들은 철학박사과정을 다 마쳐야 한다는 충고를 계속했지만 저는 그로 인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다시 찾은 믿음을 잃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철학으로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런 제게 "21세기선교는 전문직 선교사에게 비전이 있다"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은 제 행보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제게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3년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도 저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무능력의 고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논문을 마치겠다고 수십번 다짐하고나서는 수백번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엡1:18)을 따라 큰 긍휼과 인내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고후10:5)라는 말씀은 철학도인 제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무신론 사상이 가득한 이 소르본느에서 이같은 작업을 계속할 수있겠습니까?" 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5:5)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소르본느 철학과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논문이 통과하기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비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논문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 논문이 아마도 철학과에서 통과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자신들의 확신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힘이 아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논문이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통과되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그린 벽화가 있는 소르본느 강당에서 그리스 철학 이원론의 모순은 오직 성경적 사상으로 해결될 수있다는 논지의 논문이 통과되고, 한인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이 불어로 불려졌을 때 소르본느 철학과 교수들의 눈은 휘둥그레해졌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작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며, 이 작은 믿음의 승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Louange à l' Agneau.(어린양께 찬송을!)

순례길에 만난 사람 - 할렐루야찬양대지휘자 이광석 선생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일구는 찬양

"찬양은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 나옵니다."

새로 1년 간 할렐루야찬양대의 지휘봉을 잡은 이광석 선생. 이미 할렐루야찬양대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72년 서울대 음대를 들어선 후 97년 2년 반에 걸친 영국 런던 음대 대학원에서의 수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동안 음악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 다니던 중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울교회의 지휘단에 서게 됐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그는 찬양대와 인연이 깊다.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시작했으며 대학 시절부터 지휘를 맡았다. 찬양대 지휘 경력만 20년이 넘는다.

"음악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찬양만이 아닌 기도와 찬양이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것과 최선을 다할 것을 늘 강조한다. 철저한 찬양준비와 힘써 준비하는 기도로 그는벌써 빈틈없는 지휘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에게도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5년 전 건강에 위기가 왔던 것이다. 당시 그는 깊은 인간적 고뇌에 빠졌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뿐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뿐이지요"

음악과 찬송이 어울어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에게 지휘 철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502장). 바로 어렸을 적 어머니가 불러 주시던 찬송이다. 아직까지 가슴으로 울려 나온다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 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무척 사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할렐루야 찬양대는 부활절 음악예배를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평일연습을 시작했다. 온전한 찬양을 위한 그의 열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가족은 중3이 되는 아들, 부인 등 3식구. 구반포에 살며 가브리엘찬양대 허희철 지휘자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

나소정(청년부, 본지 기자)

우리 전도회 - 에스더 제 1지회

벌써 눈 앞에 새 예배당이

이해순(권사, 에스더 제 1지회장)

겨울이 끝난 것같은 온화한 날씨다. 고운 햇살이 옷 벗은 겨울 나무 사이로 따뜻하게 비취는 이월 어느 날. 설을 며칠 앞두고 여인네들은 설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다.

에스더 회원들은 설 전에 떡을 팔아보자고 기도하며 나섰다. 많은 회원들의 기도로 익혀진 떡국떡은 유난히도 맛있게 만들어져 많은 가정에 명절의 기쁨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수요일 아침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저녁예배가 마칠 때까지 피곤함도 모를 만큼 떡은 잘 팔렸다. 모두들 전도회에 협력하는 사랑 덕분이었던 것같다. 하루 떡장사를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농어촌교회에 두 번 헌금할 만큼은 벌 수 있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정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리라 믿으며 할렐루야!

에스더 1지회는 임역원들을 비롯한 보석같은 20여 명의 숨은 보배들… 모두가 아름다운 영원한 소녀같다. 서로 눈이라도 빼어내어 줄듯한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다. 일년 동안 교회의 머슴처럼 뛰어보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며 정성과 기도로 새 예배당 벽돌을 쌓겠다는 눈물 어린 고백과 믿음으로 벌써 성전이 눈에 보이며 만져지는 듯하다.

제 1지회는 교회와 가까이 있어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죽어도 살아도" 교회를 위해 힘써 저나도록 헌신하리라고 오늘도 다짐한다.

제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이안순 (집사, 예배위원)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요 기쁨이며 고백의 대합창인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확인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년 전 교회 설립 당시 예배위원교육에서 받은 위의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고 나는 그후 줄곧 예배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예배위원으로서 안내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곤 한다. 예배 시작 20 - 30분 전부터 안내를 따라 앞자리를 채우시고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어떠한 것임을 생각케 된다. 또 교회 문을 들어오시는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을 대할 때마다 불과 며칠만에 갖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만에 만나는 친정식구와 같은 친근함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만이 누리는 또 다른 기쁨이리라.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안내위원으로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같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데에 기여하도록, 그래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그러나 예배위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예배실에 입장하셔서는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앞 자리부터 채워서 앉아 주셨으면 한다. 또 목사님과 찬양대가 입장할 때 중간에서 가로막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예배에 늦으신 경우 기도 시간에는 문밖에서 조용히 기도에 동참하시다가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당내에 입장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 아이들은 유아부에 맡기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할 경우 2층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이나 호출기의 전원을 꺼서 경건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 후에는 주보나 기타 버려지는 물건이 없도록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앞자리부터 질서를 지켜 퇴장하시되 통로 중간에서 인사나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다른 성도들이 퇴장하는 일에 지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고 성숙한 분위기에서 숨소리조차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고 경건하게 드려지고 있음에 감사한다. 앞으로 더욱 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욱 발전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되되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해 온 세계의 모델이 되고 촉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목) 연목회와 연세기독동문회 연합임원회를 소집한다. 26일(금)에는 비전2020운동본부 개설 1주년 감사예배를 인도하며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최종시 장로(12교구, 전도위원장)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서울전자'를 개업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 전기섭 장로(4교구, 고등부 교사)는 한국바이린(주) 평택공장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032 - 681 - 8135)
* 최형열 집사(1교구, 고등부 교사)는 지난 해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에 국민정신교육에 공헌하여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 이번 주 식사는 송두심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요한 선교회와 유치부는 22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벽을 넘어서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2월 18일자)는 "한국의 교회가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기독교교도소 설립 추진위 간사인 이상진 목사의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다. 유교적 권위주의로 가득 찬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교도소를 종교인들의 손에 내어줌으로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보수 세력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기독교교도소는 약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로 출발하되 자원자를 선발하고 가족과 함께 치유를 받으며 교도소 건축 경비는 정부와 교회가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경비는 정부가, 그리고 프로그램 경비는 교회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이사장인 이종윤 목사는 "이 사업은 서구에서 시행되는 영리 목적의 민영교도소와는 다른 세계 최초의 기독교교도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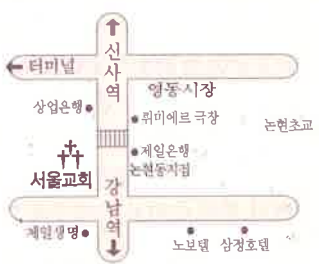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계절학교를 위해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